

선교의 특별한 기쁨

|  탄자니아 |

해외선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부임지였던 목동성당에서, 저는 당시만 해도 교구 유일무이의 11년 차 2보좌라는 금지 아닌 금지를 갖고 떠났었습니다. 그 후 해외선교를 나와 3개월의 영어 어학연수와 한 달의 오지 선교 체험, 다시 4개월의 스와힐리어 어학연수를 거쳐 마침내 발령받은 곳은, 이창원 다니엘 동기 신부님이 지내고 있는 탄자니아의 부기시(Bugisi)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인도 주임신부님, 다니엘 신부님과 더불어 명실공히 12년 차 2보좌를 달성해야 말았으니 이쯤 되면 보좌 전문가, 모든 보좌의 보좌 같은 칭호가 떠오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령받은 이곳에서 제 주요 업무 중 하나는(한번 나가면 5시간 이상 걸리는 공소 미사는 물론입니다만) 바로 양파를 까고 마늘을 까고 감자를 깎는 일입니다. 아침과 저녁을 직접 해 먹어야 하기에 매일같이 까고 깎다 어느 날 문득,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도 있던데 마늘 천 쪽을 까면 나도 어른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해외선교를 향한 저의 기대는 영화 ‘미션’이나 ‘울지마 톤즈’였지만, 현실은 ‘삼시세끼’나 ‘윤식당’ 같은 삶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오늘도 2보좌는 마늘을 깎습니다.

해외선교를 결심한 동기가 ‘가장 하기 싫은 게 해외선교이고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아프리카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라는 조금 황당한 이유였기에, 이곳에 오고 나니 왜 그리하기 싫었고 왜 그리 가기 싫었는지를 몸소 깨닫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란, 이곳은 공소만도 30곳이 넘기에 매일같이 나가도 공소 입장에서 한 달에 한 번, 길면 두 달에 한 번 신부를 만나고 미사를 드립니다. 성당도, 미사 시간도 풍족하게 고를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지금 내가 아니면 이들은 고해를 할 수 없고 성체도 모실 수 없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보람을 느끼게 해 줍니다.

보람과 삶의 지난함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만, 저의 첫 마음처럼 삶고 힘든 것들을 통해 성장할 모습과 그 힘듦의 크기만큼 보속과 희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가 보려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 크기만큼 다시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기쁨을 이곳 교우 분들뿐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 | 탄자니아 선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국장 박규홍 베네딕도 신부)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3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 문의: 727-2407, 2409 | 후원 계좌: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 미사: 매주 첫째주(목),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사순특강 및 미사: 3월8일(목)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강의: 김병수 대건안드레아 신부-한국외방선교회)